

홍콩의 ‘우산운동’ 갈등에 대한 중국과 홍콩 언론의 뉴스 프레임 분석*

왕쯔원** · 심준섭***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분석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분석결과 |
| III. 홍콩 ‘우산운동’ 갈등 개요 | VI. 결론 및 시사점 |

○ 논문요약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산운동’으로 불리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전개되면서, 중국으로서는 1997년 주권 이양 이후 홍콩과 관련한 최대의 정치적 갈등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홍콩 언론에 보도된 ‘우산운동’ 갈등과 관련된 뉴스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갈등의 역동적 전개 과정에서 중국과 홍콩 언론매체들 간의 뉴스 프레임의 차이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언론 매체 유형별로 뉴스 프레임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국과 홍콩 언론 간에도 뉴스 프레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갈등의 전개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연구의 관점에서 분석결과들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우산운동, 홍콩 시위 갈등, 뉴스 프레임, 프레임 변화, 프레임 분석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042).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교신저자)

I. 문제 제기

갈등적 이슈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갈등의 방향이나 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de Vreese 2005; Cobb & Elder 1983; Mazur 1981). 사회 내에서 갈등적 이슈가 발생되면, 그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된다. 갈등이슈는 사회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해석되고, 정의되며, 또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사회내의 또 다른 핵심적 행위자인 언론매체는 갈등적 이슈가 등장하면, 자신들의 시각에서 이슈를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해내면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언론매체들은 각자의 미디어 프레임(media frame)을 형성한다. 언론 매체의 뉴스 구성 방식, 즉 뉴스 프레임은 뉴스 시청자의 태도와 인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임양준 2009; 이준웅 2000). 언론매체는 사건과 이슈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프레임িং함으로써 대중들의 견해를 형성하고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언론매체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이슈나 사건에 대한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관점에서 이슈를 정의하거나, 전략적으로 특정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Entman 1993; Gitlin 1980; 임양준 2009; 이현우 · 이병관 2005; 강내원 2002). 그 결과 동일한 이슈에 대해 언론매체들 간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위 보수 언론과 진보언론의 뉴스 보도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언론매체들은 프레임িং를 통해 시청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Entman 1993; Gamson 1992). 특히 중대한 정치적 사건의 경우, 시청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틀 지워진(framed)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정치적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를 경험하게 된다(Chaffee, Nass, & Yang 1990). 따라서 갈등적 이슈에 대한 상이한 보도는 해당 언론의 시각과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갈등적 이슈에 대해 상이한 언론매체들에 의해 구성된 뉴스 프레임(news frame)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언론매체들 간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며, 또한 시청자들의 태도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갈등으로 부각되었던 사건이 2014년 9월의 홍콩 민주화 시위, 즉 '우산운동(umbrella movement)'이다. 당시 시위사건을 통해 중국으로서는 1997년 주권 이양 이후 홍콩과 관련된 최대의 갈등에 직면하였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은 2014년 9월 홍콩 정부청사와 입법회(한국의 국회와 동일) 부근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 철회와 새로운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대와 경찰력이 대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홍콩 시위 갈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고, 각국 언론매체들은 앞 다투어 홍콩 시위를 보도하였다. 당사자인 중국과 홍콩의 언론들 역시 각자의 프레임을 사용해 홍콩 시위 갈등을 상이하게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양국 언론매체들의 뉴스 프레임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이데올로기나 정책에 의해 언론 보도는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력이라는 국가기관이 사회적 갈등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관련되는 경우,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 언론매체들은 뉴스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나 국가중심적인 주제만을 강조하기 쉽다(Gitlin 1980). 반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오래도록 경험한 홍콩의 언론매체들은 중국 언론들과는 상이한 뉴스 프레임을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과 홍콩 언론에 보도된 홍콩 시위 갈등에 관한 뉴스 기사들을 내용분석 함으로써 중국과 홍콩 언론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 홍콩 언론에 보도된 홍콩의 우산운동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홍콩 민주화 갈등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갈등의 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중국과 홍콩 언론매체들 간의 뉴스 프레임의 차이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뉴스 보도에서 어떤 프레임들이 사용되었는가? 둘째,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갈등의 양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은 언론매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기간 동안의 중국과 홍콩의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뉴스 프레임과 프레임링

미디어 연구의 관점에서 프레임은 “담론을 일상적으로 조직화하는 상징조작자(symbol-handler)들에 의해 인식, 해석, 표현, 선택, 강조, 및 배제되는 지속적인 패턴”(Gitlin 1980; p.7) 또는 무엇이 이슈인가를 제시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를 위한 조직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해석적 패키지(interpretative package)로 정의된다(Gamson & Modigliani 1989).¹⁾ 또한 프레임은 다양한 상징체계들에 대해 의미와 일관성을 부여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적 조직화 원칙이기도 하다(Gamson 1992). 이러한 프레임 개념들은 뉴스 정보의 수요자 관점보다는 뉴스 공급자의 관점에서 프레임 개념에 접근한다. 즉, 프레임은 뉴스 공급자에 의해 뉴스 속에서 사건이나 이슈의 특정 구성요소들이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더욱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사건이나 이슈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1) 미디어 프레임과 프레임링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개념과 프레임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de Vreese 2005).

뉴스 속 프레임은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선택되고, 해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이현우·이병관 2005), “독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각하며, 확인하며, 분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Goffman 1974, p.21).” 따라서 언론에 의해 강조되는 프레임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문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도덕적 평가나 판단을 내리며,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인식된 실제의 일부분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기사나 보도 등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내에서 부각되도록 만든다(Entman 1993). 뉴스 프레임은 뉴스의 공급 주체인 언론사 및 방송사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들인 사회 운동가, 정치적 엘리트 등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물론, 프레임 형성의 산물은 뉴스, 기사 등의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에 드러나는 프레임이다(de Vreese 2005). 이러한 프레임링 접근법은 문제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Kahneman & Tversky(1979, 1984)의 기대이론(prospect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슈들이 뉴스에서 어떻게 특징지어지느냐에 따라 독자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느냐가 달라진다는 가정에 기초한다(Barker 2005; Iyengar 1990).

뉴스의 구성 과정에서 프레임링은 의제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프레임링이 이슈의 표현과 관련되는 반면, 의제형성은 이슈의 부각(salience)과 관련된다(de Vreese 2005; Roberts & McCombs 1994; Cobb & Elder 1983). 의제형성 모형은 사람들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현저한 또는 접근성이 높은 정보들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더 쉽게 더 많이 접하는 이슈나 사건일수록 판단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Tversky & Kahneman 1973). 이 과정에서 촉발사건(triggering events)과 언론보도의 빈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Roberts & McCombs 1994). 따라서 촉발사건을 기점으로 언론매체가 보도에서의 분량이나 배치 등을 통해 특정한 이슈들을 강조하는 것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이슈의 중요성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Scheufele & Tewksbury 2007). 결국, 뉴스나 보도가 특정한 이슈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 부각되도록 만들수록, 그 이슈는 중요한 이슈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실제로, Cobb & Elder(1971)는 뉴스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의제들이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2. 사회갈등과 뉴스 프레임

사회 내 많은 갈등은 단순히 객관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사건과 이슈에 대한 행위자들의 주관적 인식의 구성물이다(심준섭 2011).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행위자인 언론매체들은 주요한 갈등 이슈들에 대해 각자의 프레임을 투영하여 기사화한다(Semetko & Valkenburg 2000; 강내원 2002).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구성하기 위한 도구로 프레임이 이용되는 것이다. 언론은 뉴스를 통해 선택되고, 구성되며, 정의된 갈등 이슈와 사건들을 자신들의 시청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한다. 언론매체들은 각자의 렌즈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정한 방식으로 틀 지움으로써 구성된 경험을 제공한다(Brummans et al. 2008).

반면, 중요한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뉴스 프레임을 통해 구성된 갈등 이슈와 사건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를 제공받는다. 예컨대 화장장 입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언론에 의해 이기적인 NIMBY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뉴스 프레임에 의해 틀 지워진 갈등 이슈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이슈와 관련된 대중들의 견해와 태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하는 프레임링 효과(frame effect)를 발생시킨다. 프레임링 효과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de Vreese 2005). 특정한 뉴스 프레임에 노출됨으로써 개인들은 갈등 이슈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사회화, 집단행동 등과 같은 집단적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즉, 개인들 간에 특정한 프레임이 공유되면서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이 일어나고, 나아가 집단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Snow & Benford 1988).

개인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매체들은 갈등 상황에 대해 특정한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s)을 가지고 있다. 특정 갈등 이슈와 관련된 뉴스 프레임은 그 이슈에서 파생된 여러 다양한 하위 갈등 프레임들을 포함한다(심준섭·김지수 2011). 즉, 각 언론매체의 뉴스는 갈등 프레

임을 이용해 1) 어떤 상황이 갈등상황이며, 2) 언제,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3) 누가 갈등의 책임이 있고, 4) 갈등이 어떻게 끝나야 하며, 5) 갈등을 다루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한다(Dewulf et al. 2009; Lewicki et al. 2003; 심준섭 2011; 심준섭·김지수 2011). 물론 언론매체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통해 이슈와 사건을 구성하고 의미부여하기 때문에 각자가 정의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들은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갈등 프레임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정체성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갈등관리 프레임, 사회적 통제/권력 프레임, 위험 프레임, 손익 프레임 등이 갈등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Brummans et al. 2008; Lewicki et al. 2003; 심준섭 2011; 심준섭·김지수 2011; 주경일·최홍석·주재복 2003). 정체성 프레임(identity frames)은 갈등 당사자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된다. 특징부여 프레임(characterization frames)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나타낸다. 갈등관리 프레임(conflict management frames)은 특정한 갈등관리 방안과 절차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사회적 통제 프레임(social control frames)은 정당한 권력이 무엇이며,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시각을 나타낸다. 위험 프레임(risk frames)은 갈등 이슈로 인한 위험의 수준과 유형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손익 프레임(gain vs. loss frames)은 갈등 이슈나 사건이 당사자 자신에게 어떤 이익 또는 손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다.

3.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선행연구 검토

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면 갈등 이슈나 사건이 어떻게 뉴스로 구성되며, 누구의 입장을 반영한 구성이며, 또한 그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강내원 2002).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분석 방법인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 기법은 특정한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나 보도의 담론과 프레임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de Vreese 2005).²⁾

뉴스 프레임을 추출해 내는 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Shim et al. 2015; de Vreese 2005; Semetko & Valkenburg 2000). 연역적인 방법은 뉴스 보도는 사전에 정의되고, 조작화된 프레임들을 반영하며, 따라서 정형화된 틀에 의해 프레임들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Cappella & Jamieson 1997). 이 방법은 갈등 이슈에 관한 개별 뉴스 기사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작화된 프레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귀납적인 방법은 프레임은 분석 과정에서 창발(merge)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형화된 틀에 의한 프레임 추출을 부정한다. 이 방법은 갈등 이슈에 관한 개별 뉴스 기사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프레임들을 추출하려고 노력한다(Gamson 1992; 강내원 2002).

최근까지 언론매체 분야에서 여러 연구들이 갈등적 이슈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의 뉴스 프레임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뉴스 프레임 분석 연구들은 크게 이슈 한정 프레임(issue-specific frame)을 파악하는 연구와 일반 프레임(generic frame)을 파악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de Vreese 2005; 김지수·심준섭 2011).

이슈한정 프레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Gamson & Modigliani(1989)는 TV 뉴스 보도, 신문 기사, 만평(만화), 의견 코너 등 4개 매체 속에 실린 원자력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1945년부터 1989년까지 7개의 상이한 해석적 패키지들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Auerbach & Elkouf(2005)은 보스니아 사태를 배경으로 국제적 분쟁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들 언론들은 인본주의(humanitarian)와 안보(security)의 메타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클린턴 정부로 하여금 보스니아 사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인본주의를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사용한 반면, 뉴욕 타임즈는 안보 및 세계질서와 관련된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연구에서 포착된 뉴스 프레임들은 원자력 갈등이나 보스니아 사태와

2)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은 Goffman(1974)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합의된 절차나 기법을 찾아보기 어렵다(Shim et al. 2015).

같은 특정 사건에 한정되는 이슈한정 프레임들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슈한정 프레임들은 일반화, 프레임간 비교, 이론 구축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일반 프레임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살펴보면, Iyengar (1991, 1996)는 일일 뉴스 보도는 보다 넓은 배경적 맥락과 구조에 대한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적 이슈들을 단지 사건에 국한하여 기술하는 에피소드적 프레임(episodic interpretation)에 의존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Semetko & Valkenburg(2000)은 1997년 유럽 정상회담을 둘러싼 시기의 신문 기사와 TV 뉴스 분석을 통해 책임 귀인, 인간적 관심, 경제적 효과, 도덕성, 갈등 등 5개의 뉴스 프레임들을 확인하였다. 갈등 프레임은 개인, 집단, 기관 또는 국가들 간의 대립적 갈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적 관심 프레임은 사건이나 이슈의 보도에 있어서 개인적 이야기, 감정적 시각 등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책임 프레임은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책임을 개인, 집단, 또는 정부에 귀인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도덕성 프레임은 사건이나 이슈를 종교적 교리나 도덕적 처방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효과 프레임은 개인, 지역, 또는 국가 등에 초래되는 경제적 결과의 관점에서 이슈나 문제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들 프레임 중 책임 귀인 프레임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다음으로 갈등 프레임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e Vreese et al.(2001)은 1999년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 도입을 둘러싼 유럽 4개국 TV 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뉴스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국 모두 일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뉴스들을 프레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로화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뉴스를 프레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뉴스 프레임 연구들 역시 이슈한정 프레임 연구와 일반 프레임 연구로 구분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슈한정 프레임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준웅(2001)은 신문고시 부활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통제 프레임, 자율시장 프레임, 시장 개혁 프레임 등 세 가지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준웅의 프레임 구분은 갈등 연구에서 사회적 통제 프레임을 세분화 한 것과 유사하다(Lewicki et al. 2003; 심준섭 2011). 강내원(2002)은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정책의 비효율성/무능 프레임, 개발, 환경보호, 국민부담, 사업의 경제성, 사회적 합의 등 6개 프레임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발 프레임은 사업의 찬성 측, 환경보호 프레임은 반대 측의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확인되었다. 임양준(2009)은 용산 참사에 대한 방송 3사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피소드적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거민의 불법 폭력, 과격시위, 강경투쟁 등 주로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적 보도는 부족하였다. 또한 경찰·검찰 측 입장에서 법질서와 단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한정 프레임 연구들은 특정한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의 중심 주제(central theme)나 사건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중심 주제들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 결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뉴스의 근본적 시각과 견해를 분석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일반 프레임에 가까운 프레임 분석으로는 김원용·이동훈(2005), 이화연·윤순진(2013) 등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먼저, 김원용·이동훈(2005)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갈등과 관련된 언론 매체별 보도 프레임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핵심적 프레임으로 책임규명 프레임과 갈등 대치 프레임을 확인하였다. 진보적 언론에서는 민주합의 프레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인 프레임으로는 상황귀속 프레임이 TV 뉴스와 지역신문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생존가치 프레임이 인터넷 언론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매체별 특성에 따라 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 방안이 어떻게 다르게 프레임 되는가를 분석하는데 기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이현우·이병관(2005)은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전반적으로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안전성, 환경보호 등과 같은 갈등의 쟁점들에 관한 프레임보다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에 따른 조속한

문제해결, 정부의 정책적 책임 귀인 등의 프레임이 주를 이루었다. 갈등의 단계 별로 살펴보면, 갈등 초기의 언론보도는 방폐장 유치의 경제적 효과, 안전성 등과 관련된 프레임이 부각되었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프레임들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정부책임 귀인, 에피소드적 감성자극 프레임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화연·윤순진(2013)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들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사 성향에 따라 밀양 송전탑 갈등 보도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는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추진의 부적절성과 환경정의의 강조하기를 하였으나, 주민-한전간 대립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의 중앙 일간지는 폭력과 대립, 주민의 위법성, 분신 등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비환경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 성향의 중앙 일간지는 환경정의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반 프레임 연구들은 갈등 이슈들 간에 비교 가능한 프레임들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이한 맥락과 상황에서도 일반화 가능한 프레임들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III. 홍콩 '우산운동' 갈등 개요

1. 홍콩의 정치·행정적 배경

홍콩(香港)은 중국의 남동부에 소재한 특별행정구역이다.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홍콩은 홍콩 섬(香港島)과 주룽(九龍)과 신계(新界) 및 그 밖의 230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위키피디아 2015.5.30).

1984년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주권을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양도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홍콩이 향후 50년 동안 독립적인 자치권과 사법 체계를 유지하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존치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홍콩 시민 총투표로 행정장관을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홍콩이 중국에 양도된 후 홍콩에서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홍콩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조약에 따라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양도되었고, 홍콩은 영국 식민정부로서의 156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통킨화(董建華)는 홍콩의 첫 번째 행정장관(行政長官)으로 취임하였다.

홍콩의 정치제도는 영국 통치 시대의 행정, 입법, 사법체계를 대부분 계승한 것이었다. 그 결과 홍콩 특별행정구 출범 이후에도, 정치 제도는 중국과는 다른 형태로 유지되었다. 홍콩 기본법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안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이념에 따라서 중국 체제에서 분리되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³⁾ 그 결과,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고, 고도의 자치를 한다(港人治港)’는 원칙에 따라, 홍콩은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 Kong, China)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 경제,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 교역을 체결하고 있다(위키피디아 2015.5.30).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수반은 행정장관이며, 홍콩 행정부에 해당하는 행정회의(行政會議)를 이끌고 있다.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특별행정구 정부의 제1차 선거위원회 선거인단은 중국 국무원이 임명하였고, 제2차 선거인단부터는 기능별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행정장관은 5년을 임기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위키피디아 2015.5.30).

초대 행정장관인 통킨화는 1997년 초 중국 국무원에서 임명한 400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 투표에서 초대 행정장관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 2월, 통킨화는 8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741명의 추천을 받아, 제2대 행정장관 선거에 참여했으나 상대후보가가 없는 단독 출마여서 무투표 당선을 통해 연임되었다. 2005년 3월 통킨화는 건강 문제로 사임하였고, 2005년 6월, 정무

3) 우물물은 강물을 범하지 않는다, 각자 한계를 분명히 하여 서로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2015.5.30).

국장이며 전직 영국 홍콩정부 공무원인 도널드 창(曾蔭權)이 제2대 행정장관으로 자동 임명되었다. 도널드 창은 통킨화의 잔여 임기 2년에 자신의 임기 5년을 더해 2012년까지 재임하였다. 2012년 3월 제3대 행정장관 선거에서는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령춘잉(梁振英)이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689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2. 홍콩 '우산운동' 민주화 갈등

1997년 홍콩이 중국에 재통합된 이후 중국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양국간에는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2013년 1월 홍콩대학 법대교수였던 대요팅(戴耀廷)은 중국 정부의 행정장관 직접선거 약속이 지켜지도록 전면적 시민불복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대요팅은 2014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비공식적인 총투표를 실시하였고, 홍콩시민 79만여 명이 참여한 이 투표운동을 시발점으로 홍콩반환 17주년이 되는 7월 1일 대규모 평화시위가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17년 총투표는 보장하지만 홍콩 행정장관 후보를 중국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판사도 친중국 인사들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선거개혁안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산운동'으로 불리는 홍콩 시위 갈등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으로서는 1997년 주권 이양 이후 홍콩과 관련한 최대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홍콩 민주화 시위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 크게 4기로 구분된다. 1기는 갈등의 촉발기로서 2014년 8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로서, 동맹 휴업 중인 대학생들이 정부청사 부근 타마르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까지이다. 이 기간은 갈등의 촉발기로 분류될 수 있다. 2기는 갈등 증폭기 I로서 2014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 몽콕(旺角) 지역주민들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발생된 때까지의 기간으로, 갈등이 증폭되던 시기이다. 3기는 갈등 증폭기 II로서 2014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포위하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시기는 홍콩 정부와 학생대표간 대화 시도가 결렬되고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된 시기이기도 하다. 4기는 갈등 해소기로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 민주화 시위 지도자 3명이 경찰에 자수하고, 12월 15일 마지막 코즈웨이베이 시위캠프가 철거되는 시점까지이다.

〈표 1〉 홍콩 ‘우산운동’ 갈등의 시기별 구분

구분	시기	주요 사건
1기 : 갈등 촉발기	2014.9.27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7일 : 친중국 시위대 행사 개최 • 8월 31일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 공시 • 9월 22일부터 동맹 휴업 중인 대학생들이 정부청사 부근 타마르 공원에서 집회
2기 : 갈등 증폭기 I	2014.9.28 ~ 2014.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8일 : 대규모 시위 발생 • 9월 29일 : 시위 확산, 경찰력 최루탄 사용 • 10월 3일 : 몽콕((旺角) 지역주민들과 시위자들간 충돌
3기 : 갈등 증폭기 II	2014.10.4 ~ 2014.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1일 : 홍콩 경찰 시위대 폭행 • 10월 21일 : 홍콩 정부와 학생대표간 대화 진행 • 11월 18일 : 애드미럴티(金鐘)지역 시위대의 캠프 철거 • 11월 26일 : 몽콕(旺角) 지역 시위대 캠프 철거 • 11월 30일 : 시위대가 시정부를 포위하였고, 홍콩경찰은 시위대를 강제진압
4기 : 갈등 해소기	2014.12.1 ~ 2014.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3일 : 시위 지도자 3명 경찰에 자수 • 12월 15일 : 코즈웨이베이 시위 캠프를 철거 및 강제 진압

1) 갈등 촉발기 : 2014.년 9월 27일 이전

‘우산운동’이 홍콩에서의 첫 대규모 시위는 아니었다. 이전까지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저항운동이 반복되어왔다. 2012년 7월에는 홍콩정부가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을 결정하자 학생과 시민 9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거세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정부는 중국의 현재 상황과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편향된 정치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위클리홍콩 2014.10.16). 홍콩 정부는 결국 국민교육 도입을 철회했다. 당시 시위의 주축 세력으로 대학생과 중고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때 등장한 중·고등학생 운동단체가 바로 '우산운동'에서 도심 센트럴(中環) 지역 점거 시위의 핵심인 '학민사조'(學民思潮)였다. 2014년 8월 17일에는 '침묵하는 다수' 또는 '홍콩을 염려하는 이들의 모임' 등 친중국 단체들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9월 22일 홍콩 24개 대학 학생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결정에 반발하여 동맹휴업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홍콩 정부청사 부근 타마르 공원에서 집회를 벌였다. 중·고교 학생들과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홍콩 전체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9월 26일 홍콩학생연합(香港專上學生聯會)과 학민사조(學民思潮)가 주도하여 센트럴 내 홍콩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개혁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2) 갈등 증폭기 I : 2014년 9월 28일 ~ 10월 3일

9월 28일은 홍콩 반환 이후 최대 시위이자 가장 심각한 갈등이 증폭되는 시발점으로 기록된 날이었다. 이날 시민단체인 '사랑과 평화로 센트럴을 점령하자(讓愛與和平佔領中環)'는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지역을 점거하는 시민불복종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시위대의 규모는 급속히 커졌고, 홍콩의 주요 도심은 '우산운동'을 앞세운 시위군중들로 가득하였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이날 시위는 '센트럴 점령'의 핵심인 일반 시민 또는 민주파 의원들과 함께, 청소년인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시위대가 중심이 되었다. '센트럴 점령'의 공동 설립자인 대요팅 홍콩대 법대 교수가 센트럴 점령의 첫 단계로 정부청사 점령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학생과 시민들은 센트럴 지역과 연결된 정부청사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연합뉴스 2014.09.29). 시위의 여파로 센트럴 등으로의 차량

통행이 차단됐으며 정부청사 지하철역도 봉쇄되었다. 이날 시위대는 시위의 상징이 된 우산을 펼쳐 경찰들의 진압을 막아내며 홍콩의 완전한 선거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민주적인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안 폐지를 요구하고 령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의 하야를 요구하였다(뉴스원 2014. 09.30).

29일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세워 경찰력을 방어하려고 했으나, 센트럴로 이어지는 도로들은 대규모 경찰 병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홍콩 정부는 센트럴 점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였다. 령춘잉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센트럴 점령에 의한 불법적인 점거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발표 직후,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시도하였다.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고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에 대한 해산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최루탄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도로 위에 집결하는 등 해산을 거부한 채 밤늦게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정부청사가 있는 홍콩섬에 집결한 틈을 타 카우룽(九龍)반도로 넘어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4.09.29).

한편, 같은 날 홍콩 민주화 시위에 반대하는 친중국 시위대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선거제 개편을 찬성하면서 친정부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정부는 친정부 시위대를 이용해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우산운동’의 확산을 잠재우려 하였다(OBS 뉴스 2014.10.08).

3) 갈등 증폭기 II : 2014년 10월 4일 ~ 11월 30일

10월 3일 2주째로 접어든 홍콩 민주화 시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친중국 시위대 세력의 지원을 받은 령춘잉 행정장관이 6일까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최후 경고를 보낸 가운데, 홍콩정부는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대한 봉쇄를 풀면 학생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시위대가 5일 저녁 행정장관 관공실 봉쇄 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시위대간 대화의 가능성이 보였다. 령춘잉 행정장관의 강경한 경고와 함께, 청사

봉쇄 해제를 전제로 하는 홍콩정부의 '조건부 대화' 제안을 받은 시위대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한발 물러서며 정부와의 대화 의사를 보였다(블룸버그 연합뉴스 2014.10.06).

이에 따라 시위대는 5일 밤 몽콕(旺角) 등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시위대 해산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홍콩 경찰청 인근에서는 '홍콩정의'라는 친중국 단체가 홍콩 경찰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10월 9일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 확대되자 홍콩 정부는 시위대 지도부와의 대화를 결렬하였다. 10월 21일 정부와 대학생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 대표 간 대화가 홍콩의학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에서 각각 5명씩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11월 15일 홍콩학생연합(香港專上學生聯會)과 학민사조(學民思潮)의 두 대표는 북경으로 가서 중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호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 의해 방문허가가 취소되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11월 18일 홍콩법원이 하달한 강제명령에 따라 홍콩경찰은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역에 있는 도심 점거 시위대의 캠프를 강제 철거하고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후, 11월 26일에는 몽콕 지역 시위대의 캠프를 철거하였다. 11월 30일 시위대는 정부청사를 다시 포위하였고, 홍콩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제진압을 실시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4) 갈등 해소기 : 2014년 12월 1일 ~ 2014년 12월 15일

12월 1일 헬멧과 마스크로 무장한 시위대 수천 명이 시위 캠프 철거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 청사 주변으로 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려는 대규모 경찰 병력과 대치하면서 결국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진압봉과 최루액을 사용해 진압하는 경찰에 맞서 시위대는 우산을 펼쳐들거나 보드지로 막으며 맞섰다. 이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12월 3일 민주화 시위 지도자 3명이 홍콩 경찰에 자수하였다. 대요팅(戴耀廷) 홍콩대 교수, 찬킨만(陳健民) 홍콩 중문대 교수, 주역민(朱耀明) 등 시위 주도자들은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12월 15일 홍콩 경찰은 오전부터 코즈웨이베이 시위 캠프가 있는 도로를 봉쇄하고, 철거를 시작해 곧 바로 대부분의 시설물을 해체하였다. 경찰은 철거 작업을 방해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주변 시위대에 자진 귀가를 요구하였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 입법회 인근 광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가며 반발하였다. 이날 오후 네 번째 시위 캠프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고, 캠프 주변에 있던 시위대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코즈웨이베이 지역의 시위 캠프가 마지막으로 철거되면서 홍콩 시민의 ‘우산운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IV. 분석 방법

1.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8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간지, 인터넷 신문 및 TV 방송의 뉴스 기사를 분석단위로 하는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홍콩을 대표하는 6개 언론 매체들이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외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매체 별로 발행 목적과 언론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각 언론매체별 이념의 차이는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상이한 뉴스 프레임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에서 가장 큰 언론이며 동시에 중국 공산당 당보인 “인민일보⁴⁾(人民日報)”와 홍콩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원후이바오(文匯報)” 등 2

4) ‘인민일보’는 1948년 6월 15일 창간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매체로 자

개 일간지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인터넷 신문으로는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BBC(중국판)⁵⁾”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TV 방송으로는 중국 국가 방송국인 CCTV⁶⁾(China Central Television)와 홍콩 “평황위성(鳳凰衛視)”이 포함되었다. 이들 방송에서 보도된 TV 뉴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7시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각 언론매체 사이트를 방문하여, 기사 검색을 통해 홍콩 시위 갈등에 관한 모든 뉴스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특히, ‘홍콩 시위’, ‘홍콩 민주화’, ‘우산운동’ 등을 기본 검색어로 하면서, 관련 기사들도 모두 검색될 수 있도록 유사어 등이 검색어로 사용되었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6개 언론매체에 보도된 총 603건의 뉴스 기사가 수집되어 프레임 분석에 이용되었다. 단, 내용이 그대로 중복된 뉴스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프레임 분석에 사용된 언론매체별 뉴스 기사 건수는 인터넷 신문이 가장 많은 300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신문망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BBC(중국판)이 145건이었다. 일간지인 인민일보와 원후이바오의 기사건수는 각각 103건, 9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TV 방송의 경우, CCTV가 42건, 평황위성이 66건으로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에 비해 보도 건수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프레임 분석에 사용된 각 언론사의 기사 건수

언론사	일간지		인터넷 신문		TV 방송		합계
	인민일보	원후이바오	중국신문망	BBC(중국판)	CCTV	평황위성	
기사건수	103	92	155	145	42	66	603

리매김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중국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의 중앙기관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5) BBC(중국판) 본부는 홍콩에 소재해 있으며, 홍콩의 대표적인 언론으로 분류된다.
- 6) 중국 중앙TV 또는 중국 중앙전시대(中國中央電視臺, CCTV)는 중국의 국가라디오영화TV 총부(廣播電影電視部) 소속 국영 TV 방송국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관리, 검열 하에 보도되고 있는 관영 방송국이다.

본 연구는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중국어로 기록된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2명에 의해 코딩이 이루어졌다. 2명의 코더 간 평균 신뢰도 Krippendorff's alpha는 0.88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Krippendorff 2013).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홍콩 '우산운동' 갈등에 대한 뉴스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연역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갈등 프레임 연구에서(Brummans et al, 2008; Lewicki et al, 2003; 심준섭 2011; 심준섭·김지수 2011) 확인된 세부 갈등 프레임들과 뉴스 프레임 연구들에서(Semetko & Valkenburg 2000; Iyengar 1991; 이현우·이병관 2005; 김원용·이동훈 2005; 강내원 2002) 확인된 프레임들을 종합하여 6개의 뉴스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이들 뉴스 프레임들은 특정 이슈에 한정되는 프레임이 아닌 일반 프레임들로서 프레임 간 비교는 물론 상이한 갈등 상황과 맥락에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들이다. 각 프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귀인 프레임이다. 책임 귀인 프레임은 뉴스 보도가 사회적 갈등이나 이슈의 발생 원인 또는 책임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이다. 책임 귀인 프레임은 언론이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나타내는 특징부여 프레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Lewicki et al, 2003). 특히, 본 연구에서 책임 귀인 프레임은 중국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프레임과 시위대의 책임으로 보는 프레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중국정부 책임 귀인 프레임은 홍콩 시위 갈등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이 중국 정부에 있으며, 뉴스 보도가 갈등의 원인을 중국 정부에서 찾으려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프레임이다. 예컨대, 홍콩 BBC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오래도록 경험한 홍콩이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의 ‘강제적’ 정치통치를 반대하고 지적하였다”(2014.10.27)고 보도하였다. 반대로 홍콩시위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시위

대와 시민들에게 귀착시키는 프레임은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시위대에서 찾고, 시위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프레임이다. 예컨대, 중국 CCTV 뉴스는 “시위자들의 극단적인 행위가 홍콩 스스로의 법제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치사회와 민주사회의 표준규칙도 위반하였다”(2014.9.30)고 보도하였다.

둘째, 에피소드적 프레임(episodic frame)이다. 특정 사건이나 일화를 중심으로 이슈를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에피소드적 프레임은 뉴스가 갈등 이슈를 보도하는 데 있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분노, 공감 등의 감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이현우·이병관 2005), 개인이나 사례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인간적 관심 프레임을 포함한다(Semetko & Valkenburg 2000). 이처럼 에피소드적 프레임은 이슈를 자극적으로 묘사한다(Iyengar 1996). 특히, 에피소드적 프레임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분노, 동정심 등을 개입시킴으로서 맥락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며, 피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이슈에 접근하도록 만든다.⁷⁾ 예컨대, 중국 인민일보는 “홍콩시위는 이미 도시의 교통, 교육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반대하는 감정이 급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시위’ 행동에 참가하였다”(2014.10.16)고 보도함으로써, 피상적인 수준에서 홍콩 시위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적 갈등 프레임이다. 사회적 갈등 프레임은 개인, 집단, 혹은 기관들 간의 대립적 갈등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이다. 뉴스 보도가 갈등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나 불일치를 대립적으로 비교하거나, 승자-패자의제로섬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이다(이현우·이병관 2005). 예컨대, 중국 신문망 보도에서, “홍콩시위는 근본적으로 ‘반중앙, 반정부’의 위법 행위이고, 확실히 실패할 운명이다(2014.10.10)”라고 보도하였다.

넷째, 도덕성 프레임이다. 도덕성 프레임은 사건이나 이슈를 종교적 교리나

7) 에피소드적 프레임의 대응되는 개념이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이다. 에피소드적 프레임이 문제나 사건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는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사회적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도덕적 처방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뉴스가 도덕적, 직업적 윤리,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동 등을 언급하고, 갈등 이슈와 관련된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 등과 관련된 프레임이다(이현우·이병관 2005). 예컨대, 중국 인민일보는 “홍콩시위가 극단주의자들의 자기의식(사욕) 팽창의 산물이고, 소위 자유를 얻기 위해, 홍콩의 법칙,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2014.10.9)라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경제적 효과 프레임이다. 갈등 이슈나 사건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개인, 집단, 지역, 또는 국가 등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이다. 홍콩 시위 갈등,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인해 홍콩의 경제가 받게 되는 영향, 즉 금융시장, 무역, 관광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손익 효과에 집중하는 프레임이다. 경제적 효과 프레임은 갈등 프레임에서의 손익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이다(Lewicki et al. 2003). 예컨대, 중국 신문망 뉴스에 따르면, “시위 행동이 시작된 후에 홍콩 경제 발전, 특히 금융, 부동산, 소매, 관광 등 산업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홍콩에 많은 비즈니스 단체들이 경제의 변영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반시위’ 행동을 조직하였다(2014.10.3)”고 보도되었다.

여섯째, 문제해결 프레임이다. 문제해결 프레임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협상,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프레임으로서, 갈등관리 프레임과 유사하다. 홍콩 시위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시위대간 대화, 합의 방향, 갈등관리 대안 등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프레임이다(이현우·이병관 2005). 홍콩 평항위성은, “인민대표대회의 틀 내에서 민의를 반영한 선거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범민주파가 이를 토론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토론의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보도하였다(2014.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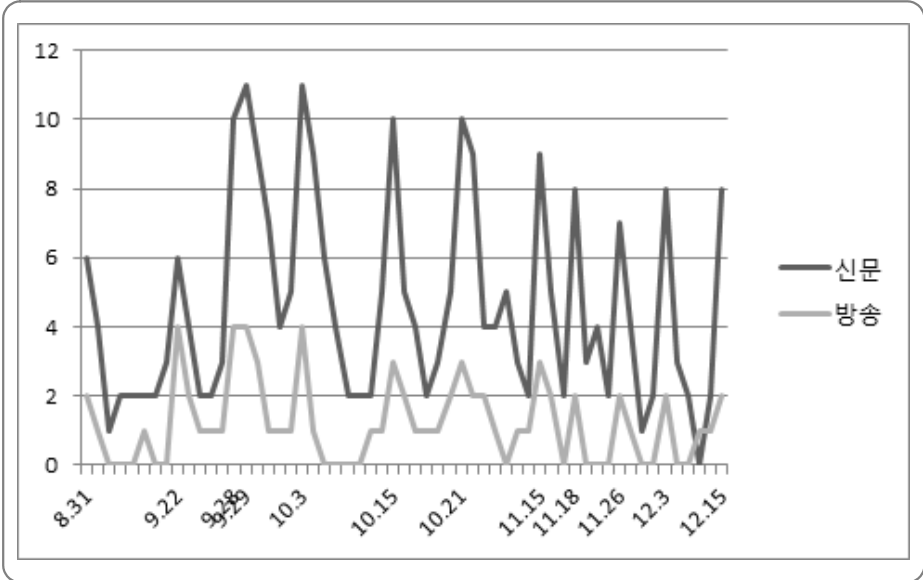
V. 분석결과

1.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보도 빈도 분석

뉴스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신문과 방송 모두 2014년 9월 28일에서부터 12월 15일 사이로 나타났다. 갈등 초기인 9월 초에는 기사건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9월 22일 동맹 휴업 중인 대학생들이 홍콩 정부청사 부근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한 시점부터 홍콩 민주화 갈등에 대한 뉴스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9월 28일 대규모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센트럴 지역과 연결된 정부청사 부근 도로의 점거가 이루어지고, 각종 시위가 격화되면서 언론의 뉴스보도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9월 29일 시위대에 대한 경찰들의 최루탄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보도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소간의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시위에 따른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뉴스보도 역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3일 홍콩 민주화 시위 지도자 3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다시 뉴스 보도가 급증하였고, 12월 15일 시위대 캠프에 대한 대대적 철거가 진행되면서 기사 건수는 또 다시 증가하였다.

갈등 시기별로 뉴스보도 건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갈등 촉발기의 52건에서 갈등 증폭기 I에는 122건으로 보도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갈등 증폭기 II에서는 305건의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보였다. 이 시기는 홍콩 시위 갈등에서 가장 장기간의 2개월에 걸쳐 홍콩 정부와 시위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갈등 해소기는 124건으로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된 뉴스보도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Roberts & McCombs 1994; 이현우·이병관 2005)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촉발사건(triggering events)과 언론보도의 빈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9월 22일 대학생들의 시위 집회는 미디어의 의제설정을 불러오는 촉발사건으로 작용하였고, 이후 9월 28일의 대규모 센트럴 지역 시위는 시위와 관련된 뉴스보도 빈도를 더욱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1]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보도 빈도의 변화 추이 (단위 : 건)



* 신문은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을 합친 빈도임

한편, 홍콩 시위 갈등 관련 뉴스보도의 증감추이는 일간지, 인터넷 신문, TV 방송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인터넷 신문이 일간지나 TV 방송사보다 훨씬 많은 기사건수를 보였다. 모든 언론매체들은 공통적으로 홍콩 시위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뉴스보도를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특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TV 방송에서 홍콩 시위에 관한 뉴스보도가 증가하는 시점마다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의 기사량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언론매체간 의제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였다(Roberts & McComb 1994; 이현우·이병관 2005). [그림 1]은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보도 건수를 시계열로 분석한 것이다.

2.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본 연구는 홍콩 민주화 시위 갈등과 관련된 뉴스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개 언론에 나타난 603건의 뉴스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 총 1,342개의 프레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보도 1건당 평균 2.2개의 프레임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체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유형 중 사회적 갈등 프레임이 331건(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책임귀인 프레임이 315건(23.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위대를 비난하는 시위대 책임 프레임이 177건(13.2%)이었으며, 중국 정부 책임 프레임은 138건(10.3%)이었다. 그 밖에, 문제 해결 프레임 258건(19.2%), 에피소드적 프레임 214건(15.9%), 도덕성 프레임 35건(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립적 태도, 관계, 및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춘 뉴스 보도가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홍콩 언론들이 중국정부를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반면, 중국 언론들은 홍콩 시위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표 3〉 홍콩 시위 갈등의 뉴스 프레임 구성⁸⁾

프레임 구분		빈도	비율(%)
사회적 갈등 프레임		331	25%
문제해결 프레임		258	19%
에피소드적 프레임		214	16%
경제적 효과 프레임		189	14%
책임귀인 프레임	시위대 책임 프레임	177	13%
	중국 정부 책임 프레임	138	10%
도덕성 프레임		35	3%
합계		1,342	100%

8) 개별 뉴스마다 확인된 프레임들이 모두 코딩되었기 때문에 프레임의 합계는 분석된 기사 건수보다 많았다.

타났다. 이와 함께, 에피소드적 프레임이 많은 점은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맥락적, 종합적 접근보다는 시위 그 자체나 시위대에 대한 일화적, 감성적 뉴스보도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3>은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이다.

3.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언론매체별 뉴스 프레임 분석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된 뉴스보도에서 언론사에 따라 뉴스프레임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도내용에 나타난 프레임 구성은 언론매체들 간에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일간지인 인민일보와 원후이 바오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 에피소드적 프레임, 시위대 책임 귀인, 경제적 효과, 중국 정부 책임 귀인, 도덕성 프레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V 방송 역시 일간지와 비슷한 프레임 구성을 보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 에피소드적 프레임, 시위대 또는 중국 정부의 책임귀인 순으로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CCTV가 시위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시위대 책임 프레임을 12.1%(12건) 사용한 반면, 홍콩의 평항위성은 중국 정부 책임 프레임과 시위대 책임 프레임을 각각 14.2%(26건)로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비되었다. 반면, 인터넷 신문인 중국신문망과 BBC(중국판)의 경우 뉴스 프레임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신문망의 경우, 사회적 갈등(25.4%), 문제해결(19.2%), 경제적 효과(18.9%), 에피소드적 프레임(15.5%), 시위대 책임 귀인(13.2%) 등의 순으로 프레임 빈도가 높았던 반면, 홍콩의 BBC(중국판)은 사회적 갈등(25.6%), 정부책임 귀인(20.1%), 문제해결(16.4%), 에피소드적 프레임(13.6%)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신문이 일간지나 TV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레임 구성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신문망이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홍콩의 BBC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이 중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언론매체와 홍콩 언론매체 간에 책임 귀인 프레임의 사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6개

언론매체별 프레임 구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79.73$, $df = 30$, $p < 0.001$).

또한, 언론 매체에 관계없이 도덕성 프레임은 전체 기사 중 35건으로 상당히 낮은 빈도를 보였고, 매체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홍콩 시위 갈등의 맥락과 배경을 분석하기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에피소드적 프레임은 6개 매체 모두에서 18.5%(인민일보)에서 13.6%(BBC 중국판)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뉴스보도를 이성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표 4>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언론 매체별 뉴스 프레임의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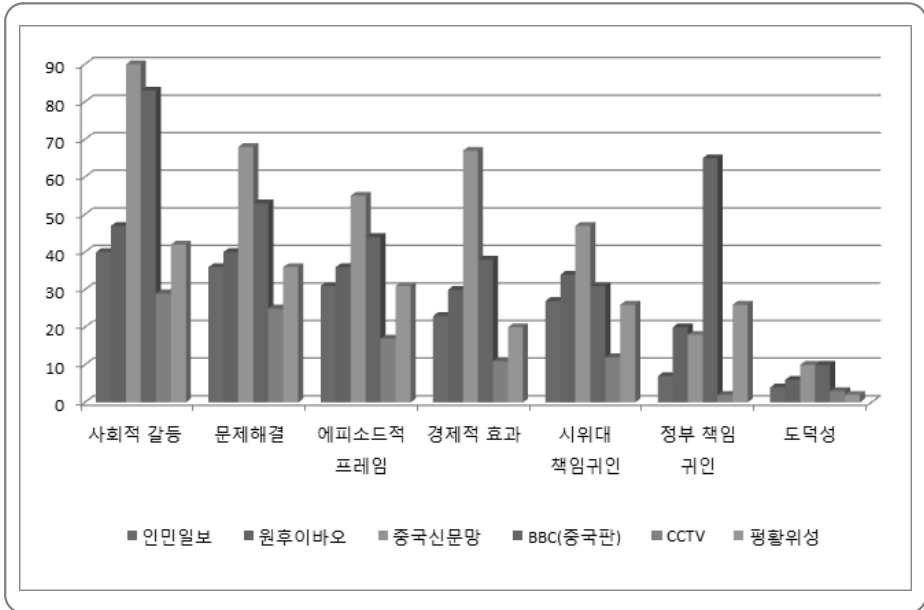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	에피소드적 프레임	경제적 효과	시위대 책임귀인	정부 책임 귀인	도덕성	합계
인민일보	40 (23.8%)	36 (21.4%)	31 (18.5%)	23 (13.7%)	27 (16.1%)	7 (4.2%)	4 (2.4%)	168 (12.5%)
원후이바오	47 (22.1%)	40 (18.8%)	36 (16.9%)	30 (14.1%)	34 (16.0%)	20 (9.4%)	6 (2.8%)	213 (15.9%)
중국신문망	90 (25.4%)	68 (19.2%)	55 (15.5%)	67 (18.9%)	47 (13.2%)	18 (5.1%)	10 (2.8%)	355 (26.5%)
BBC (중국판)	83 (25.6%)	53 (16.4%)	44 (13.6%)	38 (11.7%)	31 (9.6%)	65 (20.1%)	10 (3.1%)	324 (24.1%)
CCTV	29 (29.3%)	25 (25.3%)	17 (17.2%)	11 (11.1%)	12 (12.1%)	2 (2.0%)	3 (3.0%)	99 (7.4%)
평황위성	42 (23.0%)	36 (19.7%)	31 (16.9%)	20 (10.9%)	26 (14.2%)	26 (14.2%)	2 (1.1%)	183 (13.6%)
합계	331 (24.7%)	258 (19.2%)	214 (15.9%)	189 (14.1%)	177 (13.2%)	138 (10.3%)	35 (2.6%)	1,342 (100%)

* 주 : 괄호 안은 비율

[그림 2] 언론 매체별 뉴스 프레임의 구성 비교

(단위 : 비율)



4. 홍콩 시위 갈등의 단계별 뉴스 프레임 변화 분석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된 뉴스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이 갈등 전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갈등의 단계별로 뉴스 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갈등이 증폭될수록 뉴스 프레임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촉발기에는 106건(7.9%)의 프레임이 확인되었으나, 갈등증폭기 I에는 301건(22.4%)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갈등증폭기 II까지 프레임의 빈도는 678건(50.5%)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갈등 해소기에는 뉴스 프레임의 빈도가 257건(19.2%)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5>는 갈등 단계별로 뉴스 프레임의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은 <표 5>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갈등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갈등 촉발기에서는 에피소드적 프레임(25.5%), 시

위대 책임귀인(23.6%), 경제적 효과(18.9%)의 순으로 뉴스 프레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 증폭기 I부터 갈등 해소기까지는 사회적 갈등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문제해결, 에피소드적 프레임, 경제적 효과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홍콩 시위 갈등에 관한 초기의 감성적이고, 일화적인 언론보도 프레임들 중심에서, 갈등이 전개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립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갈등 단계별 뉴스 프레임의 구성 비교

(단위 : 건)

구분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	에피소드적 프레임	경제적 효과	시위대 책임귀인	정부 책임 귀인	도덕성	합계
갈등 촉발기	9 (8.5%)	15 (14.2%)	27 (25.5%)	20 (18.9%)	25 (23.6%)	7 (6.6%)	3 (2.8%)	106 (7.9%)
갈등 증폭기 I	77 (25.6%)	54 (17.9%)	42 (14.0%)	40 (13.3%)	38 (12.6%)	42 (14.0%)	8 (2.7%)	301 (22.4%)
갈등 증폭기 II	175 (25.8%)	131 (19.3%)	107 (15.8%)	92 (13.6%)	82 (12.1%)	71 (10.5%)	20 (2.9%)	678 (50.5%)
갈등 해소기	70 (27.2%)	58 (22.6%)	38 (14.8%)	37 (14.4%)	32 (12.5%)	18 (7.0%)	4 (1.6%)	257 (19.2%)
합계	331 (24.7%)	258 (19.2%)	214 (15.9%)	189 (14.1%)	177 (13.2%)	138 (10.3%)	35 (2.6%)	1,34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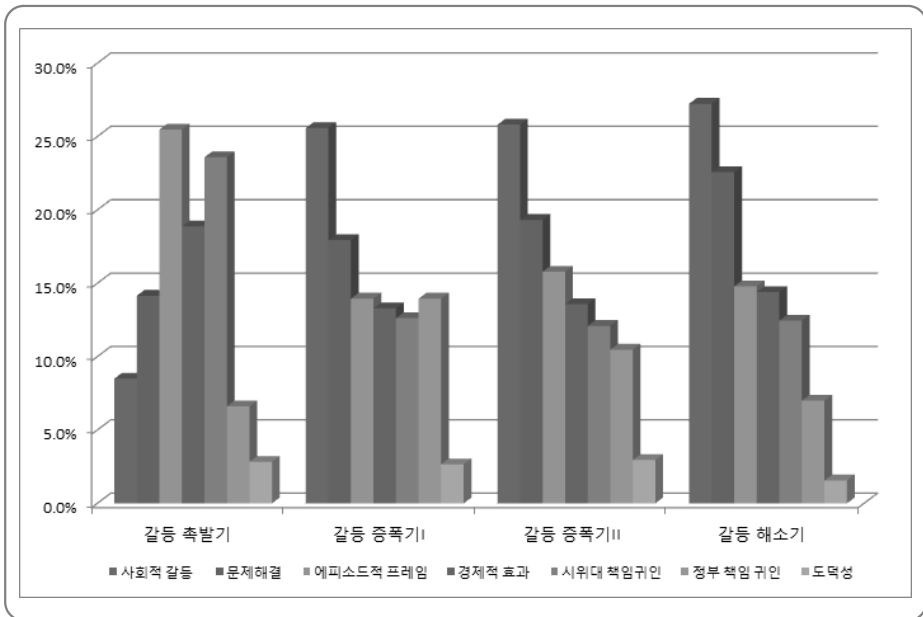
* 주 : 괄호 안은 비율

또한 중국 정부 책임귀인 프레임은 갈등의 전개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갈등 촉발기에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시위대 책임 귀인 프레임 역시 갈등이 전개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문제해결 프레임은 갈등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도덕성 프

레임은 모든 단계에 걸쳐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진행됨에 따라 언론들이 대립적인 갈등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갈등의 원인에 대한 책임 논쟁보다는 갈등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χ^2 검증 결과, $\chi^2 = 45.10(df = 24, p < 0.01)$ 로 갈등의 단계별 프레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표 5>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갈등 단계별 뉴스 프레임의 구성 비교

(단위 : 비율)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4년의 홍콩 시위 갈등과 관련한 중국과 홍콩의 뉴스보도에 나타난 프레임을 분석하고,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뉴스 프레임 구성이 어떤 변화

를 보이게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홍콩의 6개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된 홍콩 시위 갈등 관련 뉴스들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위대와 중국 정부 간의 대립적 관계나 갈등, 그에 따른 문제해결 필요성 및 대안, 시위대나 시위 사건 중심의 에피소드, 중국 정부 또는 시위대에 대한 갈등 책임 귀인 등이 주요한 뉴스 프레임들로 확인되었다.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은 언론매체별로, 또한 갈등 단계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하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갈등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갈등 이슈나 사건이 뉴스에서 어떻게 프레임되는가는 갈등의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대중들의 판단은 물론 대안에 대한 선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홍콩 시위 갈등의 발생 초기에는 시위나 사건을 에피소드적으로 접근하고, 시위대에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뉴스 프레임들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갈등의 발생 원인이 중국 정부 보다는 시위대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갈등이 전개되면서 시위대와 중국 정부간의 부정적 갈등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이처럼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갈등 속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을 정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상대방을 특정부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더 나아가 뉴스 프레임 구성의 차이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갈등의 사회적 중요도가 커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게 되고, 갈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Cobb & Elder 1983; 이현우·이병관 2005).

둘째, 갈등 전개과정에서의 일련의 촉발사건들이 뉴스 프레임의 빈도는 물론 프레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시위 갈등 기간 동안 뉴스량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9월 28일 대규모 시위대에 의한 센트럴 지역 점거가 이루어지고, 시위가 격화되면서 뉴스 건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갈등 중풍기 I 이 시작된 이때부터 뉴스 프레임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홍콩 시위 갈등 발생 초기에는 사건을 에피소드적으로 접근하고, 시위대에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시위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들을 강조하는 프레임들이 중심

이었다. 그러나 갈등이 급격히 증폭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적 구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갈등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들은 갈등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갈등 전개과정에서의 뉴스 프레임 구성변화는 언론이 갈등 자체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갈등 해결의 필요성과 대안을 부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갈등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뉴스를 통해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갈등이 관리되고 해결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셋째, 언론매체별로 뉴스 프레임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인터넷 신문은 일간지나 TV 방송과는 차별화된 프레임 구성을 보였다. 또한 홍콩과 중국 언론의 프레임 구성 역시 차이가 두드러졌다.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중국 언론은 정부 산하기구로 인식되어 중국 공산당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 정부의 통제에 따라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孙旭培 1993).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인민일보와 CCTV는 국가방송 매체로서 상당한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비판적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매체의 특성상, 중국신문망은 상대적으로 기사화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였고, 시위 사건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기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통제하의 언론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뉴스 기사와 내용이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아닌 범위 내에서 비판적인 해설기사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이효성 2009). 마찬가지로, 홍콩의 BBC(중국판) 역시 중국 정부에게 시위 책임을 돌리고,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뉴스 보도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신문이나 방송과는 차별화된 뉴스 프레임 구성을 보여주었다.

고속 인터넷의 보급 속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급증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인터넷 신문이 일간지나 TV 방송과는 프레임 구성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점은 인터넷 신문의 뉴스보도가 갈등의 역동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터넷 신문의 매체 특성상 갈등 상황에 대한 즉각

적인 보도가 가능한 점은 향후 공공갈등 연구에서 인터넷 언론매체가 이해관계자들 및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뉴스가 갈등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해석을 제공하기 보다는 사건, 행위자 등의 일화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에피소드적 프레임의 사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yengar(1991)는 언론 조직 자체의 규범과 기준들이 에피소드적 프레임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서 정부가 언론정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언론관을 고수하고 있다(이효성 2009). 이러한 언론관은 중국 언론 조직들의 강력한 규범과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보도들은 시위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기보다는 일화적 사건의 수준으로 시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분절적이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자 하였다(Iyengar 1991). 예컨대, “시위대가 새로운 바리케이드 설치, 라이브 인터뷰 뉴스 기사를 포위 공격”(인민일보 2014.10.15), “홍콩시위대 - 경찰 충돌, 찬반세력 충돌 발생”(중국신문망 2014.10.13) 등의 뉴스는 홍콩 시위에 대한 에피소드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은 중국 언론이 에피소드적 프레이밍을 통해 자국민들이 홍콩 시위 갈등을 맥락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뉴스에서 에피소드적 프레임의 빈번한 사용은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맥락적, 종합적 이해보다는 단편적, 피상적 이해를 촉진하기 쉽다. 특히, 정책 반대집단이나 주민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정적 특징부여를 강화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기 쉽다.

이상과 같은 공공갈등 연구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기술적으로(descriptive)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따라서 뉴스 프레임을 독립변수로 다룬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에 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뉴스 프레임이 중국과 홍콩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홍콩 시위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이 중국 및 홍콩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내원(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한국언론학보』 46-3: 5-44.
- 김원용·이동훈(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168-213.
- 심준섭(2011).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 20-2: 149-178.
- 심준섭·김지수(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2.
- 이준웅(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효과.” 『언론과 사회』 29: 85-142.
- 이준웅(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1: 442-482.
- 이화연·윤순준(2013).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제와 사회』 98: 40-76.
- 이현우·이병관(2005).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5-3: 516-547.
- 이효성(2009). “중국신문의 이중적 속성과 집단화 및 내부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5-4: 235-248.
- 임양준(2009). “집단지성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용산참사에 대한 MBC, KBS, SBS 저녁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5: 55-79.
- 주경일·최홍석·주재복(2003).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한탄강댐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4: 193-221.
- 孙旭培(1993). 新闻学新论, 北京, 社科文献出版社,
- Auerbach, Y. & Bloch-Elkon, Y.(2005). “Media framing and foreign policy: The elite press vis-vis US policy in Bosnia, 1992~95.” *Journal of Peace Research*, 42-1: 83-99.
- Barker, D. C.(2005). “Values, frames,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nomination campaigns.” *Political Behavior*, 27-4: 375-394.

- Brummans, B., et al.(2008). "Making sense of intractable multiparty conflict: A study of framing in four environmental disputes." *Communication Monographs*, 75-1: 25-51.
- Cappella, J. N., & Jamieson, K. H.(1997). *The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ffee, S. H., Nass, C. I., & Yang, S-M.(1990). "The bridging role of television in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7-2: 266-288.
- Cobb, R. W. & Elder, C. D.(1983).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 Vreese, C. H.(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nformation Design Journal & Document Design*, 13-1: 51-62.
- de Vreese, C. H., Peter, J., & Semetko, H. A.(2001). "Framing politics at the launch of the Euro: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frames in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18: 107-22.
- Dewulf, A., et al.(2009). "Disentangling approaches to framing: mapping the terrain." *Human Relation*, 69-2: 155-193.
- Entman, R. B.(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Gamson, W. A.(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mson, W. A., & Modigliani, A.(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Iyengar, R.(1996).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 59-70.

- Iyengar, S.(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R.(1990). "Shortcuts to political knowledge: The role of selective attention and accessibility." In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es*, (Eds). J. Ferejohn and J. Kuklinski,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60-85.
- Kahneman, D., & Tversky, A.(1979). "Prospect theory-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hneman, D., & Tversky, A.(1984).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 341-350.
- Krippendorff, K.(201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3r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Lewicki, R., Gray, B., & Elliott, M.(2003).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pts and cas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Mazur, A.(1981). *The dynamics of technical controversy*. Washington, DC: Communications Press.
- Roberts, M., & McCombs, M.(1994). "Agenda setting and political advertising: Origins of the news agenda." *Political Communication*, 11: 249-262.
- Scheufele, D. A., & Tewksbury, D.(2007). "Framing, agenda setting, and priming: The evolution of three media effects models." *Journal of Communication* 57: 9-20.
- Shim, J., Park, C., & Wilding, M.(2015), "Identifying policy frame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an examination of nuclear energy policy across six countries." *Policy Sciences*, 48-1: 51-83.
- Semetko, H. A., & Valkenburg, P. M.(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now, D. A., & Benford, R. D.(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9.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versky, A., & Kahneman, D.(1973). "Availability: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207-232.
- De Vreese, C. H.(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nformation Design Journal+ Document Design* 13-1: 51-62.
- D. Vreese, C. H., Jochen, P., & Semetko, H. A.(2001). "Framing politics a the launch of the Euro: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frames in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07-122.
- 블룸버그 연합뉴스(2014.10.06) : <http://m.hankooki.com/app/paper/pdfViewM.php?pdfKey=sk20141006A12&num=7>
- 중국인민일보(中國人民日報) : www.paper.people.com.cn
- 원후이바오(文匯報) : www.wenweipo.com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ED%99%8D%EC%BD%A9>(2015.5.30)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www.chinanews.com
- BBC(中文版) : www.bbc.co.uk
-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中央電視臺) : www.cctv.cntv.cn
- 위클리 홍콩(2014.10.16). [르포] 홍콩 '우산혁명' 시위대에 몰렸다.
(<http://www.weeklyhk.com/news.php?code=&mode=view&num=15815>)
- 연합뉴스(2014.09.29) 홍콩 도심 점거 시위... 경찰과 충돌로 수십명 부상.(<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29021209074>)
- OBS NEWS(2014.10.08.)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dxno=840385>
- 평화위성(鳳凰衛視) : www.ifeng.com
- 뉴스1(2014.09.30) : <http://news1.kr/articles/?1881160>

○ Abstract

Framing “Umbrella Movement” in Hong Kong: A Comparison of News Frames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Wang, ZiYuan · Shim, Junseop***

As the pro-democracy movement expands, Hong Kong had faced a severe political conflict known as the ‘umbrella movement’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4. This study compared new frames on the umbrella movement among six major medias i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It found substantial differences in news frames between two countries. It was also found that framing in news varies across the types of media.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Key words : umbrella movement, Hong Kong protest conflict, news frame, frame analysis

논문투고일 : 2015년 08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0일

*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Public Service, Chung-Ang University